

“열정적 춤 ... 첫 출전서 큰 상 받아 감격”

“우리 음악 들은 사람들 신났으면 좋겠어요”

댄스 대상 '치얼스'

“멋지고 파워풀한 무대만 선보이는 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대상까지 바라지 않았는데, 팀원들 간 열정과 춤에 대한 마음이 우승을 이끈 것 같습니다.”

지난 1일 제6회 청소년축제 공연예술경연에서 댄스부문 대상을 차지한 '치얼스'는 송원여상 교내 동아리로, 선자홍(19)·김진아(19)·김혜교(19)·성민영(18)·김도연(18)·김효은(18)·장경(18)·하지은(17)양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댄스팀이다. 이들 여학생은 여전사 같은 힘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큰 호응을 받았다.

이들은 “이번 경연대회 출전을 위해 학교와 댄스연습실에서 한 달간 열심히 준비했다. 실력이 있는 팀들이 많아 걱정했는데, 대상을 수상해 기분이 좋다”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들은 이번 대회가 처녀 출전인데도, 다른 참가자들처럼 긴장하거나 떨지 않았다.



이번 대회에서 아쉬운 점은 없었느냐는 질문엔 “아쉬움은 없었고 우리 팀 모두에게 최고의 무대였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 팀은 적게는 4년, 많게는 6년간 댄스 동아리 등에서 활동해 온 나름 실력 있는 팀이다. 오는 7일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치러지는 한 축제 관계자로부터 공연 제의를 받고 무대공연에 나설 계획이다.

진아양은 “곧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졸업 전에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아서 만족스럽다. 팀 명이 '치얼스'인데, 훗날 각자 분야에서 최고가 된 뒤 만나 잔을 부딪치며 위로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면서 “이번 대회서 팀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밝은 미래를 설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실용음악 대상 '데이앤데이'

“지난해 청소년축제(제5회)에선 입상도 못했는데, 올해 최고의 상인 대상을 받게 돼 너무 기쁩니다. 노력의 대가를 받은 것 같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지난 1일 '제6회 청소년축제 공연예술부문 경연에서 대상을 수상한 실용음악부문 '데이앤데이'의 이현민(19·광주고 3년)군과 김소정(여·17·대광여고 1년)양은 이날 수상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2년 전 광주에서 각자 길거리 공연을 하다 우연히 만난 이들은 음악적 취향이 같다는 것을 알고 팀을 꾸리게 됐는데, 어릴 적부터 노래를 하는 게 재밌었다는 점도 이들의 공통점이었다. 특히 노래를 통해 공부하는 데 지친 일상의 고단함과 외로움을 달래주는 이번 경연에서 가수 비투비의 '기도'를 선보이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콩쿠르 등에 참여해 음악적 실력을 갖춘 이들과 경쟁을 통해 역량을 쌓아가면서 가수로서 꿈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다음달엔 이군이 작사·작곡하고 이들이 피쳐링한 앨범이 발매된다.

특히 파워풀한 곡부터 솔이 가득한 노래까지 두루 실력을 갖춘 이들은 앞으로

도 다른 사람에게 노래를 통해 흥을 나눠 줄 수 있는 뮤지션이 되는 것이 목표다.

이들은 “팀명이 '데이앤데이'인데, 낯이 낯선데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내 음악을 들은 사람이 신났으면 좋겠다. 그런 뮤지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실수 없이 공연 마쳐 기뻐요”

최우수상 'KJN파워댄스'

“선배들 없이 저희끼리 무대에 오른 적은 처음입니다. 실수없이 공연을 마치고 수상도 하게 돼 기뻐요.”

'제6회 청소년축제'에서 광주지역 여중·고생으로 구성된 댄스팀 'KJN파워댄스'가 최우수상인 광주시교육감상을 수상했다.

팀의 리더 서하영(동아여고 3년)양을 주축으로 고은비(서진여고 3년)·김세영(송의중 1년)·우지원(동아여중 1년)·김도희(봉선중 1년)양 등 5명은 이날 미국을 대표하는 여가수 마돈나의 '보그'(Vogue)와 엘리아 키시의 '카르마'(karma)에 맞춰 강렬한 '군무'를 선보였다. 이들은 모두 '생활체육지도자'를 꿈꾸

며 '김진여 댄스스쿨'에서 춤을 배우고 있는 동문이다. 그동안 학원 선배들과 팀을 이뤄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해 대상을 휩쓸었고, 해외초청 공연의뢰가 들어올 만큼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축제 무대에 오르기 위해 성인인 선배들이 청소년들만 팀을 꾸렸다. 이들과 무대에 오른 게 처음이라고 한다.

“든든한 선배들이 없어 불안했어요. 이번 대회 출전을 위해 매일 4시간씩 두 달 동안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서하영 양은 “우려했던 것과 달리 좋은 성적을 거두 뿌듯하다”며 “다음달 일본 기타큐슈 왓쇼이 축제 초청공연에서도 멋진 무대를 선보여 실력을 인정받고 돌아오겠다”고 다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지난 대회 아픔 씻어내 뿌듯”

최우수상 '페르세포네'

“지난 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한 실욕을 감을 수 있어 뿌듯합니다. 이제야 선배들 볼 맛이 생겼네요.”

광주 동신고등학교 밴드동아리 '페르세포네'가 제6회 청소년축제에서 공연예술부문 최우수상인 광주시교육감상을 받았다.

2학년인 김민찬·김준기·정하람·이희건 군과 1학년 막내 전성운 군으로 구성된 '페르세포네'는 이날 '브로큰 발렌타인'(Broken Valentine)의 곡 '포커 페이스'(Poker Face)를 자신들의 스타일로 편곡해 선보였다. 해비메탈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연주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다.

'페르세포네'는 청소년축제 '단골 손님'이다. 1회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

지 않고 모두 출전했다. 2·3·4회 축제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가져갔다. 그러나 지난해는 입상하지 못했다. 당시 1학년으로 출전했던 현재 2학년 친구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쓰린 기억이라고 한다.

이들은 매주 금요일 동아리 수업시간을 활용해 2시간씩 연습했다. 지난 대회 설욕을 위해선 오로지 연습밖에 없었다. 주말이면 졸업한 동아리 선배가 다니는 교회까지 찾아가 연습할 정도로 절박했다.

김민찬 군은 “당시 1학년 때 수상하지 못해 동아리 선배들에게 면목이 없었다”며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지난해 아픔을 씻어낼 수 있게 됐다. 이제 선배들을 당당히 마주할 수 있게 됐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무연고 아동을 돕시다”

광주일보·초록우산 공동 '품다' 청소년 축제서 홍보

지난 1일 열린 '제6회 청소년축제' 현장에서 지역 내 무연고 아동을 돕기 위한 뜻깊은 활동이 펼쳐졌다.

광주일보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주최하는 무연고 아동돕기 프로젝트 '품다'에 참여 중인 ▲국제고 ▲동신여고 ▲문성고 ▲송덕고 ▲전남여고 등 광주 5개 고교 학생과 멘토로 참여한 대학생 등 10여명은 이날 부스를 마련,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축제현장을 오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팸플릿을 나눠주며 무연고 아동 지원현황과 아동복지시설 부족 등 실

태에 대해 설명했다.

'품다'는 부모로부터 버려져 연고 없는 광주·전남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무연고 아동돕기 프로젝트'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을 바탕으로 한 문화기획 경험을 제공하고 리더십을 길러주기 위한 공익형 사업이다.

정호(동신여고 3년) 양은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흔쾌히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무연고 아동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공유해줬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이 사업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으로 운영된다.

수상자 명단

- ▲대상(교육부장관상)=치얼스(송원여상) 선자홍·김지아·김혜교·김효은·김도연·성민영·장경·성지은·하지은
- ▲대상(교육부장관상)=데이앤데이 이현민(광주고)·김소정(대광여고)
- ▲최우수상(광주시교육감상)=페르세포네(동신고) 김민찬·김준기·정하람·이희건·전성운
- ▲최우수상(광주시교육감상)=KJN파워댄스 서하영(동아여고)·고은비(서진여

- 고)·김세영(송의중)·우지원(동아여중)·김도희(봉선중)
- ▲우수상(광주일보사장상)=오영민(풍암고)
- ▲우수상(광주일보사장상)=슈프림 김유은(진도국악고)·한요하
- ▲우수상(광주일보사장상)=헤라클레스 김대현(전남공고)·장하빈(전남공고)·장태민(전남공고)·최건(전남공고)·김연주(전남공고)·김준화(전남공고)·최영(금파공고)



▲고등부 우승(광주일보 사장상)=Aura(광주고) 김유준·조유승·김푸름·박건이



▲중등부 우승(광주일보 사장상)=FOBIS 김영웅(우산중)·장중웅(일동중)·문예훈(조대부중)·정형수(운림중)

3 on 3 길거리 농구 우승

▲고등부 우승(광주일보 사장상)=Aura(광주고) 김유준·조유승·김푸름·박건이

▲중등부 우승(광주일보 사장상)=FOBIS 김영웅(우산중)·장중웅(일동중)·문예훈(조대부중)·정형수(운림중)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김영선씨 장남 현우군 안상남(여수법무사)씨 차녀 대화양=8일(토) 오후 1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층.

등문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강열) 월례회=5일(수) 오후 6시30분 광주시 동구 화랑궁하관 062-224-1800.

알림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인성모작 커뮤니티(학습동아리) 지원=사교나 친목이 아닌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 토론, 활동이 있는 5명 이상의 중장년층 참여자로 구성된 커뮤니티. 23(금)까지 접수.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의 062-600-5241. ▲일가정양립지원본부 5차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

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지원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365일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광주서구중독관리센터 열린마음상담센터 무료상담=서구지역 중독 및 정신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상담 금호복지관 062-383-0205, 쌍촌복지관 062-373-0207, 쌍촌시영복지관 062-373-0203.

▲최창렬 전실용음악교수 강좌=색소폰, 기타, 재즈 피아노 등 무료강의(초보환영).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평생교육원, 매주 일요일 오후 2시~4시 강의. 문의 010-4617-6078.

모집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중장년세대 동년배 상담실 운영=제2인생설계를 위한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재무, 건강, 관계 등. 매일 오후 1시~6시. 광산구 소촌동 시공무원교육원 4층. 문의 062-600-5242.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

당,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속식보육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사)'장애인먼저' 실천광주운동본부 회원=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각종 장애인관련 행사 보조,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 등. 062-511-0030, 514-2929.

▲광주·전남불교신도회원은 불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불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불자(55세 이하) 무각사 내 불교회관 2층 법당 062-385-1336.

▲남구 방림1동 새마을 협의회원=자

원봉사 남자 회원 수시 모집(자녀 장학금 혜택 있음) 010-9612-7695.

▲푸른길통동문화마을 회원=푸른길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각화문화의집 프로그램 회원=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30분) 등 수시 회원 모집,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265-9337.

부음

▲김미령씨 별세 박은우씨 모친상 박상석씨 부인상=발인 3일(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조영신씨 별세 한동·한걸씨 부친상 강성욱씨 남편상=발인 4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류제순 님(여/74세) 子/子婦: 송봉수/주홍숙, 원석 女/婿: 송원숙/김상성, 미숙/전현기, 방자 夫君: 송정중 • 발 인: 7월 4일 • 장 지: 고흥 두원 선영	401호 故이한용 님(남/71세) 子/子婦: 이 은재, 윤재, 인재 未亡人: 김수연 女/婿: 이강민/고재영 未亡人: 강경자 • 발 인: 7월 3일 • 장 지: 담양 천주교묘역
402호 故이쌍만 님(남/64세) 子: 하완호 女/婿: 하희란/최종걸 未亡人: 이경희 • 발 인: 7월 3일 • 장 지: 영월묘역	101호 故이 훈 님(남/41세) 子: 이은재, 윤재, 인재 未亡人: 김수연 女/婿: 이강민/김혜숙 • 발 인: 7월 3일 • 장 지: 영락묘역

함께 할 10년, 함께 할 100년 금호 장례식장 062-227-4000
www.mykumho.com